

## 하나님의 형상 지키기

성경말씀: 창1:26-27

2012년 4월, 린다 머피, 가장 큰 독립침례교회 목사의 딸, 아버지는 2001년 사망, 제부와 여자 동생이 교회를 맡아서 운영함. 제부가 이번에 성추문 사건을 일으킴.

자기 아버지에 대해 사이비 집단의 지도자, 어머니를 극도로 미워하면서도 밖에서는 극도의 위선을 행함, 아이들도 어머니를 미워하게 함. 마인드컨트롤로 전 교인들을 꼼짝 못하게 한 카리스마, 아버지에 대한 스캔들, 자기 오빠 역시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서 목사가 된 이후로 14명의 여인들과 스캔들, 이번의 제부 역시 11년 동안 끊임없이 교리 문제, 사생활 문제로 구설수에 오름. 결국 자신의 가정생활의 비밀을 털어놓음. 남들이 보기엔 좋은 목사의 가정이지만 본인은 도저히 위선과 죄악을 견딜 수 없어서 28살에 집을 나옴. 이제는 50세가 넘는 상태에서 인생 여정을 간단히 회고함.

행복한 가정생활의 중요성, 부모의 위선이 부르는 가정 파탄, 내 가정과 세 딸을 돌아보게 됨.

이 여인의 긍정적인 메시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유, 진리, 용기

###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 6일 창조 우주 만물, 사람, 가정, 죄, 민족들, 이스라엘 등 우주 공간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는 오직 사람뿐이다.

형상: image,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본 뜬 것.

어떤 것의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경배하지 말라(출20:4). 새, 짐승 등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창1:27) 영적, 지적, 도덕적 측면에서 그리고 의와 거룩함에서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음을 뜻한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타락한 상태의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났다(창5:3).

성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고후4:4; 골1:15; 히1:3).

이것은 그분이 본질이나 특성에서 하나님과 같음을 뜻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어(롬8:29) 결국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벧후1:4).

이제 2학기가 시작되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청년들이 세미나도 참석하고 기특하다.

또 속박을 벗어나 자유를 찾아 우리 교회로 오는 이들이 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중 가장 중요한 속성인 자유, 진리, 용기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 자유

하나님의 형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꼭두각시 인형이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개, 고양이 인간은 양심/신앙의 자유, 모임의 자유, 거주 이동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창3:1-5, 마귀가 아담과 이브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만들고 그들의 타락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죄의 지배를 받는 종이 되고 말았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얻게 하는 것, 눅4:18-19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생활, 1948년 8월 15일 광복절

흠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 하리

이 날이 사십년 뜨거운 피 영긴 자취니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1948년 8월 15일 얼마나 좋았을까? 다큐멘터리에 드러난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이집트 속박 생활, 출애굽의 자유

예수님은 구약시대 4000년 동안 무지와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세상에 자유의 빛을 주신 분이다.

사도행전 이후의 기록들: 예수님의 자유를 맞본 사람들의 사람의 변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는 참된 자유를 몰랐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 확증된 자유를 깨닫고는 담대한 자들이 되었다. 행4:19-20, 그리스도의 자유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다.

AD 313년 밀라노 칙령, 기독교 공인, 기독교의 타락, 중세암흑시대: 천주교의 자유 박탈

양심/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 의해 성경이 보존되고 믿음의 유산이 전달되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자유의 물결

1521년 1월 12일, 카를 5세의 보름스 제국 회의, 기왓장이 마귀의 수처럼 많이 보였다.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시니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하시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나는 교황이나 교회의 결정만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류를 범했고 서로 모순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 왔던 성경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만끽하고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 진리

자유를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방종과 타락으로 들어가기 쉽다. 특히 마귀의 개입으로 자유라는 엔진을 갖춘 기차를 진리라는 궤도 위에서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인본주의, 물질만능주의 시스템으로 사람의 눈을 가린다. 특히 요즘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적인 진리를 추구하게 만든다. “내가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요18:37-38).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많다. “진리가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17:17).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14:6).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다. 진리를 올바르게 담고 있는 바른 성경이 중요하다.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 36).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 용기

마귀의 세상에서 진리와 자유를 가지고 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특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좋은 대접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였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베드로의 말씀(벧전4:3-4) 킹제임스 성경 침례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단이라 불리는 일 요16:33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 결론

하나님의 형상: 도덕적 성품, 죄로 인해 파괴됨.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복원시켜 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자유, 진리, 용기 특히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성경 신자로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자유, 말하고 물을 수 있는 자유, 모일 수 있는 자유 이것은 성경 말씀의 진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발을 뻗을 수 있는 용기: 성령님께서 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청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자유와 진리와 용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